

대구광역시 국적별 외국인 거주지 분포

강승준 · 김미주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및 연구지역

II. 본론

1. 구·군별 외국인 거주지 분석
 - 1) 구·군별 외국인 수
 - 2) 구·군별 외국인 체류조건
 - 3) 구·군별 국적별 외국인 입지계수 분석
2. 동별 국적별 외국인 거주지 분리

결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약 280만명, 2030년에는 약 4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자국민의 평균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대구광역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내국인들의 거주지와 거리를 두고 형성될 것이고, 그 외국인들의 국적에 따라 거주지가 분리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적별로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거주하는지를 알아보고, 각 구·군의 산업특성과 외국인들의 체류조건을 적용하여 특정 국적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국적별로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연구 방법

주로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대구광역시 행정 구역별 외국인의 전체 분포를 파악 후, 국적별로 외국인들이 각각의 행정구역에 어떤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현황 분석을 위해 외국인이 어느 지역에 특화하여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각 구·군에 대해 국적별 인구의 입지계수¹⁾를 통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특정국적 외국인의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구별 외국인들의 체류조건을 통해 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중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했다.

3. 연구대상 및 연구지역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의 91일 이상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1>의 인구수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이며,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5년 14,530명, 2010년 20,401명, 2012년 21,922명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총 8개의 행정구역 중 달서구에 15,54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북구에는 8,702명, 달성군에는 6,604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6,967명, 베트남인 4,062명, 인도네시아인 1,489명,

1) 지역에서 산업이나 인구집단 등의 특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수. 어떤 비율의 높고 낮음을 비교의 대상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판단하며, 1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은 특정산업이나 인구집단 등에 대해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text{입지계수(LQ지수)} = \frac{A_{\text{구·군의 } i\text{국적 외국인 수}} / A_{\text{구·군의 } i\text{국적 외국인 수}}}{\text{대구광역시 } i\text{국적 외국인 수} / \text{대구광역시 외국인 수}}$$

필리핀인 1,306명, 미국인 946명, 스리랑카인 854명, 우즈베키스탄인 826명, 대만인 737명, 파키스탄인 680명, 일본인 435명, 방글라데시인 322명, 캐나다인 300명, 영국 213명, 그 외 기타국적 2,755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적별 외국인의 거주지를 보기위한 연구로 기타국적으로 정확한 국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통계자료는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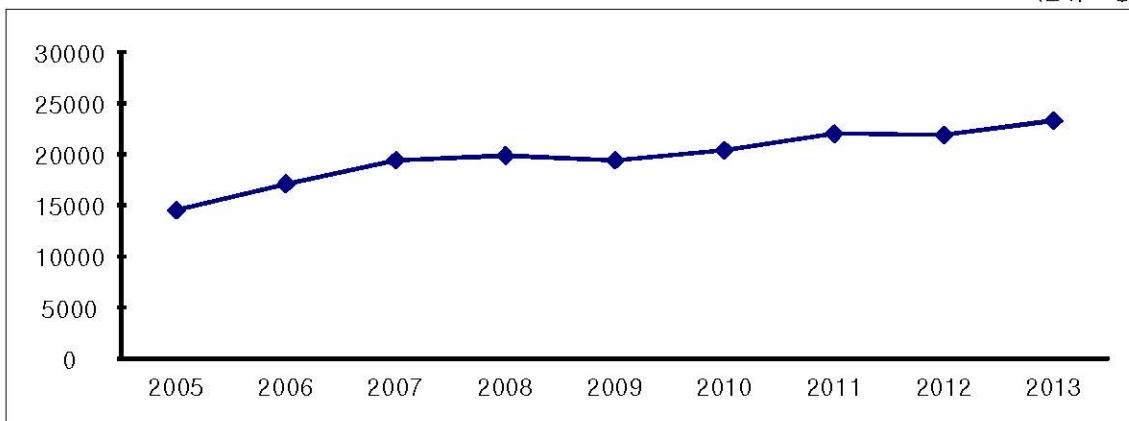
표 1. 국적별 외국인 수

(단위 : 명)

구 국적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중국	186	629	548	275	1914	363	2371	681	6967
베트남	59	331	456	140	665	133	1512	796	4062
인도네시아	2	27	158	5	145	6	773	373	1489
필리핀	17	82	120	107	208	56	495	221	1306
미국	57	96	18	78	171	278	225	23	946
스리랑카	1	21	74	12	119	0	279	348	854
대만	227	77	48	143	101	142	86	2	826
우즈베키스탄	10	19	113	13	129	12	292	149	737
파키스탄	2	3	127	4	138	3	310	93	680
일본	26	47	32	28	92	53	119	38	435
방글라데시	6	0	73	2	72	4	136	29	322
캐나다	13	35	5	14	44	98	78	13	300
영국	12	14	8	6	40	64	60	9	213
기타	85	171	182	74	513	166	1037	527	2755
합계	1406	3104	3924	1802	8702	2756	15546	6604	21922

그림 1. 대구광역시 등록 외국인 수 (2005 - 2013)

(단위 : 명)



II. 본론

1. 구·군별 외국인 거주지 분석

1) 구·군별 외국인 수

중국인이 대구광역시 거주 외국인 중 6,967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스리랑카, 대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일본, 방글라데시, 캐나다, 영국, 기타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8개의 구 중 달서구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달성군, 북구, 서구 순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 달성군의 산업단지, 북수의 제3공업단지, 서구의 서대구공업단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달서구,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만인은 중구,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은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다.

2) 구·군별 외국인 체류조건

각 구의 체류목적별 등록 외국인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받는 비자의 종류에는 90일 미만 9개, 91일 이상 20개로 나뉘어져 있다. 90일 미만은 외국인 등록이 불가능한 비자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91일 이상 체류자 통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표 2. 구·군별 외국인의 체류조건

(단위 : 명)

행정구역	체류조건	취업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학업
중구		113	16	88	20
동구		172	109	393	14
서구		44	770	356	38
남구		144	5	167	49
북구		444	814	461	331
수성구		515	32	257	17
달서구		575	3148	670	346
달성군		75	2080	244	18
합계		2082	6974	2636	833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표 2>와 같다. 학업 목적의 비자에는 유학(D-2), 일반연수(D-4)이며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가 받는 비자다. 학업 목적의 외국인은 북구와 달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북구에는 경북대학교, 달서구에는 계명대학교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표 3>과 같다. 취업 목적의 비자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관광취업(H-1)이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지도활동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종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취업 목적 체류

자들은 달서구, 수성구, 북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달서구와 북구의 대학교와 수성구의 많은 학원가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며, 2004년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총 15개국으로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이다. 대구광역시에 비전문 취업 목적의 외국인 체류자는 6,9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와 달성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 달성군의 여러 산업단지의 입지의 영향인 것이며, 달서구와 달성군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일자리 주변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한다.

표 3. 결혼이민 외국인 체류자 수

(단위 : 명)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남자	10	34	32	14	38	62	105	33	328
여자	78	359	324	153	423	195	565	211	2,308
합계	88	393	356	167	461	257	670	244	2,636

학업 목적, 취업 목적, 비전문취업에 따른 외국인의 구별 인구수는 대부분 남자의 수가 많고 여자의 수가 적은 반면, 결혼이민 외국인의 수는 여자의 수가 많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중심지인 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보다 중심지에서 떨어진 북구와 달서구, 동구, 서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구·군별 국적별 입지계수 분석

각 국적별 외국인이 거주지의 특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의 8개의 구·군에 거주하는 국적별 외국인의 비율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국적별 외국인의 비율로 나눠서 입지계수를 알아보았다. 그 값은 <표 4>과 같다. 각 수치들이 1 이하의 값을 가지면 대구광역시의 특정 국적 외국인의 비율보다 구·군별 특정 외국인의 비율이 낮은 것이고, 1 이상의 값을 가지면 구·군별 특정 외국인의 비율이 대구광역시의 특정 국적 외국인의 비율보다 큰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은 1이상의 값을 가지는 행정구역이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0.4~0.6의 값을 가지며 달성군에서의 중국인 입지계수는 0.32의 값으로 가장 낮다. 이는 곧 대구광역시 전체에 거주하는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특정 지역에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군별 비슷한 비율로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 달성군에는 중국인이 대구광역시 전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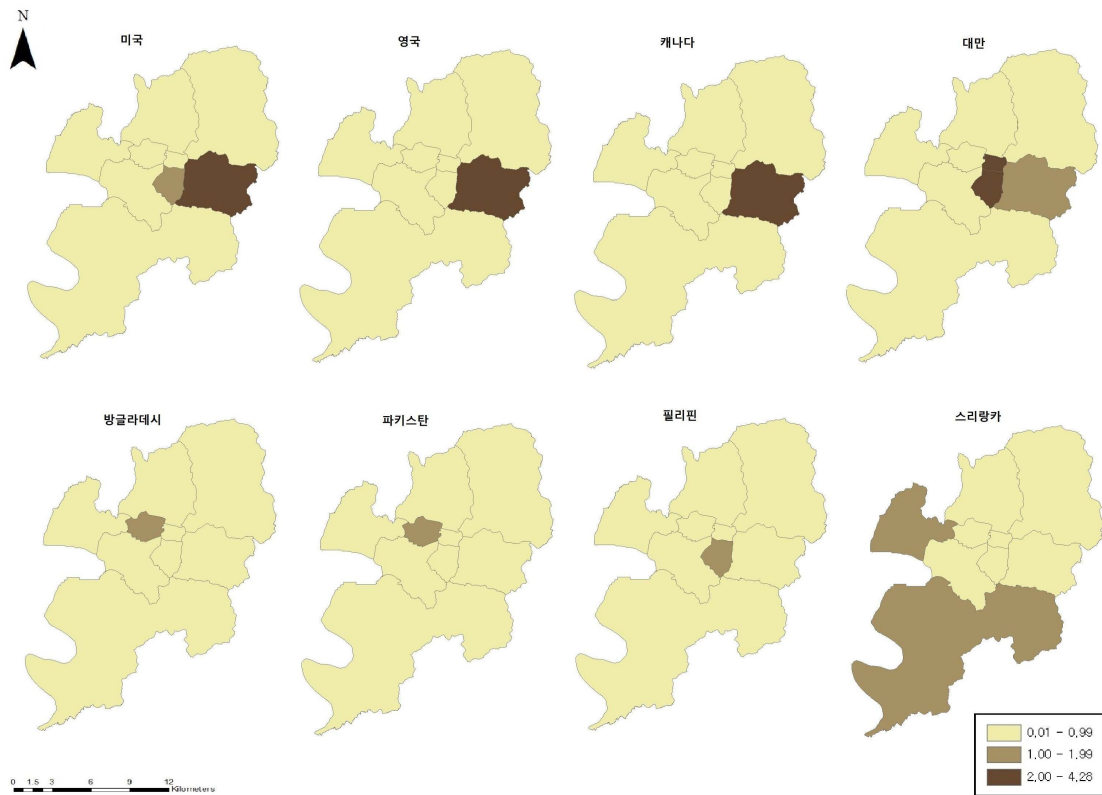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특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입지계수의 값은 4.28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에서 중구의 각 국적별 외국인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만인보다 중구에 거주하는 대만인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대만인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 서구에 대한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국적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이다. 이 국가들은 이슬람교를 국교이며, 파키스탄인과 스리랑카인은 같은 국적은 아니지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처음 이주해 온 파키스탄인과 스리랑카인이 자리 잡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구 거주 파키스탄인과 스리랑카인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 구·군별 국적별 입지계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스리랑카	대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일본	방글라데시	캐나다	영국
중구	0.42	0.22	0.02	0.20	0.94	0.02	4.28	0.21	0.05	0.93	0.29	0.68	0.88
동구	0.64	0.57	0.13	0.44	0.72	0.17	0.66	0.18	0.03	0.76	0.00	0.82	0.46
서구	0.44	0.62	0.59	0.51	0.11	0.48	0.32	0.86	1.04	0.41	1.27	0.09	0.21
남구	0.48	0.42	0.04	1.00	1.00	0.17	2.11	0.21	0.07	0.78	0.08	0.57	0.34
북구	0.69	0.41	0.25	0.40	0.46	0.35	0.31	0.44	0.51	0.53	0.56	0.37	0.47
수성구	0.41	0.26	0.03	0.34	2.34	0.00	1.37	0.13	0.04	0.97	0.10	2.60	2.39
달서구	0.48	0.52	0.73	0.53	0.34	0.46	0.15	0.56	0.64	0.39	0.60	0.37	0.40
달성군	0.32	0.65	0.83	0.56	0.08	1.35	0.01	0.67	0.45	0.29	0.30	0.14	0.14

그림 2. 각 국가의 입지계수



2. 동별, 국적별 외국인 거주지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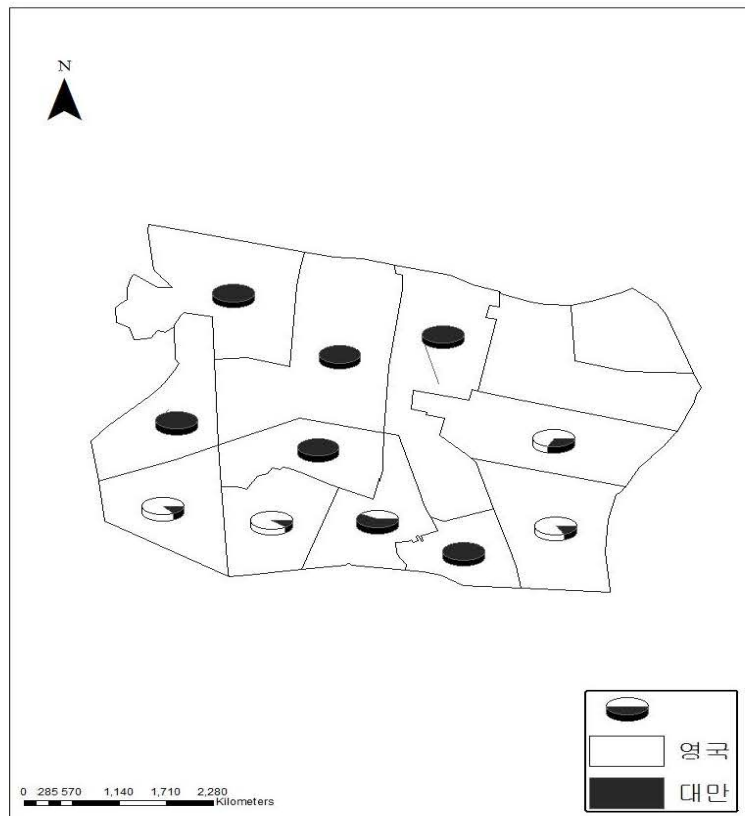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개의 각 구·군내에서 국적별 외국인의 거주지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구·군의 동별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분포도를 제작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8개의 구·군 중 남구에 대한 동의 국적별 거주지에 대한 통계 자료의 부재로 남구의 국적별 외국인 거주지의 분포는 제외하였다. 각 구·군마다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과 적게 거주하는 외국인을 알 수 있으며, 동별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구광역시 등록 외국인들은 35%가 달서구, 20%가 북구, 15%가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일본인은 달서구, 북구에, 스리랑카인은 달성군, 미국, 영국, 캐나다인은 수성구, 대만인은 중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지도들은 각 동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과 적게 거주하는 동을 알아보고, 각 국적에 따라 동마다 거주하는 비율을 통해 퍼센트로 변환하여 지도화 한 것이다.

중구 거주 외국인들은 성내1동과 성내2동에 각각 16%가 거주하고 있다. 중구 거주 대만인의 32%가 성내2동에 거주, 중구 거주 중국인의 20%가 성내1동, 13%가 동인동에 거주한다. 중구 거주 미국인의 32%, 캐나다인의 31%가 삼덕동에 거주하는 반면, 영국인의 42%, 필리핀인의 24%는 대봉1동에 거주하고 있다. 성내2동에 있는 한국대구화교소학교는 대만인들에게, 대봉1동의 외국어 학원은 중구 거주 영국인의 흡인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3>과 같이 중구에서는 영국인과 대만인의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3. 중구의 대만, 영국의 거주지



동구 거주 외국인들의 14%가 안심 3,4동, 안심1동에 거주하고 있다. 동구 거주 중국인의 15%가 안심1동에, 베트남인의 16%가 안심1동에, 15%가 안심 3,4동에 거주하는 반면, 미국인의 44%가 불로·봉무동에 거주한다. 이와 같이 동구에서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동구의 중국인과 미국인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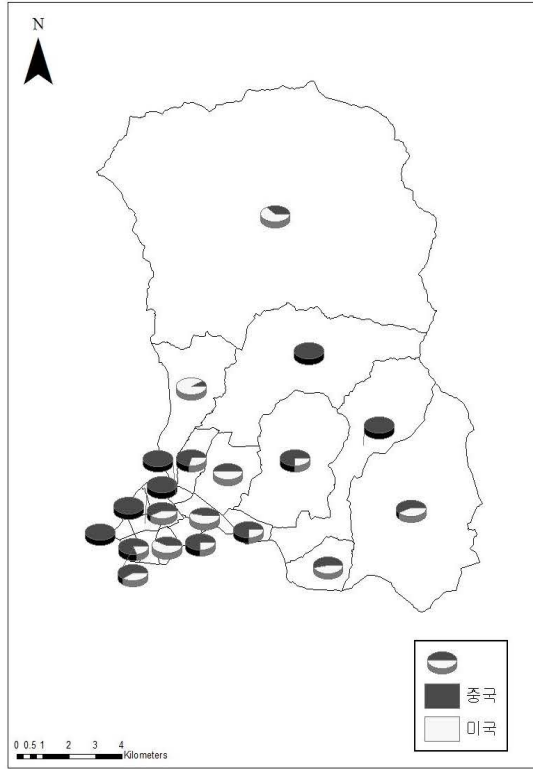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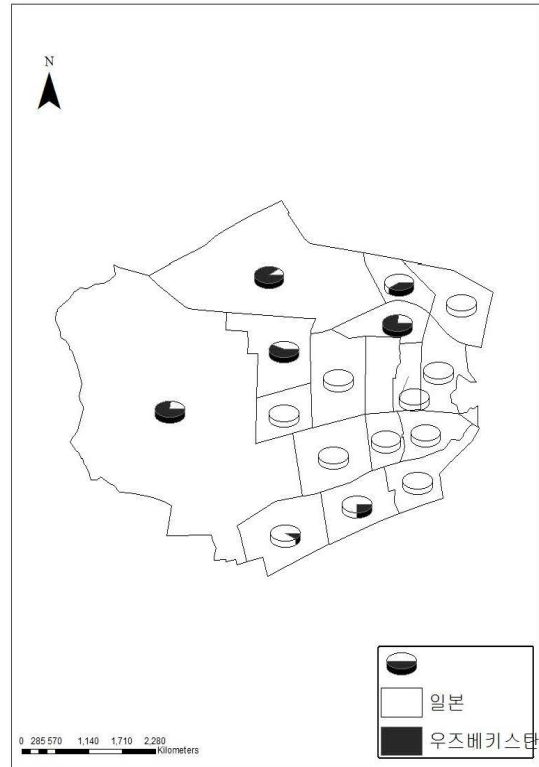


그림 5. 서구의 일본, 우즈베키스탄인의 거주지



서구 거주 외국인들의 26%가 비산7동에, 24%가 상중이동에 거주하고 있다. 서구 거주 중국인의 19%가 비산7동에, 베트남인의 22%가 상중이동에, 20%가 비산7동에 거주하는 반면, 미국인의 22%는 평리4동에, 영국인의 25%가 비산4동에 거주하며 캐나다인들은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다. 서구 비산7동 북부정류장 인근에 있는 에스닉상점이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을 비산7동에 거주하도록 하는 흡입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인들과 달리 일본인과 미국인은 평리3동과 평리4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주지 분포는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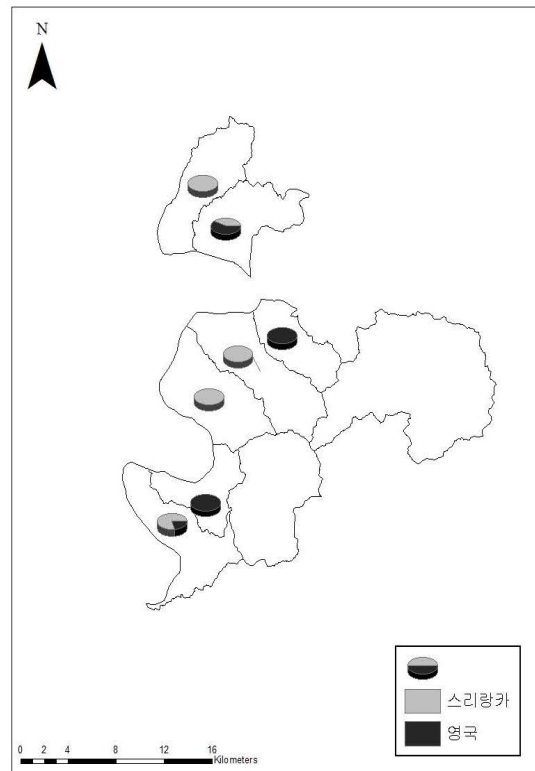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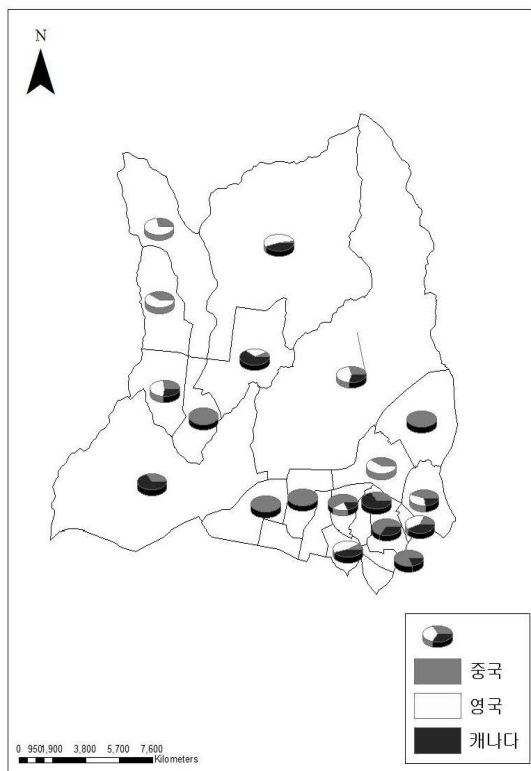
북구 거주 외국인들의 17%가 산격1동에, 산격3동, 노원동에는 각각 11%가 거주하고 있으며, 북구 거주 중국인의 23%가 산격1동에, 20%가 산격3동에 거주한다. 그러나 북구 거주 영국인의 30%는 동천동에, 캐나다인의 25% 동천동에 거주하고 있다. 즉, 중국인과 영국인, 캐나다인들이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구 거주 중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의 분포는 <그림 6>와 같다.

수성구 거주 외국인들은 지산1동, 고산3동, 범어2동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23개의 동에 비슷한 비율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수성구 거주 중국인은 지산1동과 고산3동에 각각 9%

가 거주하며, 미국인의 12%, 캐나다인의 10%가 범어2동에 거주하며, 영국인의 13%는 지산1동에, 대만인의 14%는 수성4가동에, 베트남인의 10%가 만촌1동에 거주하는 패턴을 보이며, 중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촌동 일대, 범어동 일대에 국적별로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수성구는 대구광역시의 8개의 구·군 중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어학원, 재수학원 등의 사설 교육기관이 많이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의 강사를 직업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 달성군의 외국인들은 중국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반면, 수성구에는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6. 북구 거주 중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의 거주지

그림 7. 달성군이 스리랑카, 영국인의 거주지



달서구 거주 외국인의 33%가 신당동, 20%가 월성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거주한다. 반면 영국인의 22%가 진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인과 베트남인과의 거주지 분리를 알 수 있다. 위의 <표 2>의 체류조건을 보면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달서구에 가장 많다. 이를 보면 달서구의 성서산업공단이 가장 큰 흡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학업목적의 외국인 또한 많은 곳으로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계명대학교도 흡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의 48%가 논공읍에, 18%가 구지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인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표 2>의 체류조건을 보면 달성군도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분포와 같이 스리랑카인의 거주가 많은 곳이 논공읍, 구지면으로 달성군 산업단지³⁾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성군 거주 일본인의 32%, 영국인의 67%가 화원읍에 거주하고 있다.

달성군 거주 스리랑카인, 영국인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Ⅲ. 결론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내 외국인들의 국적별 거주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에 91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달서구와 달성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군마다 체류조건과 국적에 따라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체류조건에 따른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학업 목적의 체류 외국인들은 북구와 달서구에 많으며, 취업목적의 체류 외국인은 달서구와 수성구, 북구에 많다. 비전문취업 목적의 체류 외국인은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 서구에 많고, 결혼이민 체류 외국인들은 달서구, 북구, 동구 순으로 많다.

그리고 국적별 외국인들의 특화된 거주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대만인은 중구에 특화되어 나타나고, 캐나다, 영국, 미국인은 수성구에 특화되어 나타나며 스리랑카는 달성군에 특화되어 거주하고 있다. 그 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서구에, 필리핀인은 남구에 특화되어 거주하고 있다.

중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3%가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은 성내동1동, 성내2동에 많이 거주한다. 대만인은 성내1동, 중국인은 성내2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디인은 삼덕동, 영국, 필리핀인은 대봉1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동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7%가 거주하고 있으며, 안심3,4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안심3,4동과 안심1동에는 대부분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반면, 불로,봉무동에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9%가 거주하고 있으며, 비산7동에 많이 거주한다. 중국인은 비산7동, 베트남인은 상중이동에 많이 거주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평리4동, 영국인은 비산4동에 거주한다. 북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20%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격1동에 많이 거주한다. 중국인은 산격1동과 산격3동에 많이 거주하는 반면, 영국인과 캐나디인은 동천동에 많이 거주한다. 수성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6%가 거주하며, 지산1동에 많이 거주한다. 총 23개의 동으로 구분되며, 23개의 동에 비슷한 비율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미국, 캐나디인은 범어1동에 많이 거주하며,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인은 고산3동에 많이 거주한다. 달서구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35%가 거주하며, 신당동과 월성2동에 많이 거주한다. 신당동과 월성2동에는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대부분 거주하며, 영국인은 진천동에 거주한다. 달성군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의 15%가 거주하며, 대부분 논공읍에 거주한다. 논공읍에는 대부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인이 대부분 거주하는 반면, 일본인과 영국인은 화원읍에 거주한다.

이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의 국적별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2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을 기준으로, 달서구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인, 중구에는 대만인, 달성군에는 스리랑카인, 수성구에는 미국, 영국, 캐나디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 달서구와 달성군 거주 외국인은 성서공단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성구 거주 외국인은 사설학원 및 교육기관의 외국어 강사를 직업으로 가진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중구의 경우, 한국대구화교소학교의 영향으로 대만인들이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3) 대구달성일반 1차산업단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달성일반 2차산업단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 대구광역시의 구·군내 외국인의 거주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인들의 거주지와 미국, 영국, 캐나다인들의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거주지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국적에 따라 직장의 종류가 다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직장 인근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직업, 체류조건에 따라 다르다.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들의 거주지는 주로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 북구의 대구 제3공업공단, 달성군의 대구달성산업단지과 가까이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인들의 거주지는 수성구의 학원가와 가까이 있다.

본 연구는 국적별 외국인들의 거주지에 대한 것으로, 국적별 체류조건에 대한 데이터 부재에 의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각 구·군별 국적별 외국인의 체류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거주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이진영·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 국토지리학회지」 47(1): 85-100.
- 김동식, 2012. "대구 달서구의 외국인 분포와 일상활동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강은택, 강은택, 박세훈, 하성규, 전명진, 마강래, 권오규, 안아림, 박선영, 2012.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정책적 함의", 「도시정보지 통권 제368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참고 사이트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대구광역시 중구청 <http://www.jung.daegu.kr>
- 대구광역시 동구청 <http://www.dong.daegu.kr>
- 대구광역시 서구청 <http://www.dgs.go.kr>
- 대구광역시 남구청 <http://www.nam.daegu.kr>
- 대구광역시 북구청 <http://www.buk.daegu.kr>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http://www.suseong.kr>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http://www.dalseo.daegu.kr>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http://www.dalseo.daegu.kr>

부록

표 5. 비자의 종류와 내용

(*)는 취업가능 비자

목적	비자종류	내용
학업	유학 (D-2)	· 일반연수, 강습,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md을 연수하는 자
취업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회화지도*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연구(E-3)*	·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기술지도* (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업* (E-5)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관광취업* (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기타	취재(D-5)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문화예술 (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종교(D-6)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 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방문동거 (F-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방문, 가족동거 • '주한외국공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외국인등록을 마친자'의 동거인 등
	거주(F-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 난민인정을 받은자 등
	동반(F-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재외동포* (F-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업	주재(D-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기업투자 (D-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무역경영 (D-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